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7. 음녀와 큰 성 바벨론 2

2014. 08. 3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7장의 앞에 몇 구절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음 구절들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애청자들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 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7:5~7]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7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1. 목사님, 지난시간에 붉은빛 짐승을 탄 화려하게 치장한 창녀로 상징된 계시적 실체에 대하여 설명해주셨는데, 이 계시적 형상에서 붉은 색은 붉은 용의 색깔이고 죄와 피의 색깔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은 대로 교회를 상징하니깐 창녀로 표상된 교회는 세상의 정권과 연합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솔로몬이 저지를 허물을 역사적 표상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창녀로 표상된 교회가 그 순결한 교회를 핍박할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고요, 짐승이 나라인데 이것은 나라를 타고 다니는 정교연합의 교회국가라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창녀의 더 확실한 정체를 나타내는 내용을 살필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답: 목사님, 잘 요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이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봅시다.

[계17: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창녀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첫째는 비밀입니다. 다음은 큰 바벨론입니다. 셋째로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의 세 짐승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또한 이것은 14장에 144,000인들의 이마에 이름이 적인 것을 모방한 것도 됩니다. 마태28:19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명하셨는데, 삼위인데 이름이 단수, 곧 한 이름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흉내 내어 여기는 한 존재가 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존재가 하나

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단어는 역시 단수입니다. 첫째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 그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창녀에 대하여 누군가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이 모르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용입니다. 그리고 그 용으로 표상된 루시퍼의 조종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비밀이지요.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교회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과 계시를 성령의 인도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저는 그 정체를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폭로하도록 부름을 받는 사명자들입니다. 다음은 큰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바벨론이 혼잡이라는 뜻인 것은 이미 알고 있지요. 바다짐승은 생김새부터 혼잡이지요. 그런데 이 창녀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창녀로 표상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표상된 교회는 교리에 성경적이 아닌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계14:8에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고 선포한 바로 그 바벨론의 실체이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 아닌 교리와 신조와 교회법에는 많은 참람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셋째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은 딸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딸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음녀, 즉 창녀노릇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들도 자녀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한 말은 “브델뤼그마”인데 주로 우상숭배를 나타냅니다. 큰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교회는 우상숭배 하는 자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고 가르칩니다. 큰 바벨론은 어머니 창녀로 표현된 교회입니다. 딸 창녀는 그 어머니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음녀들이라고 했지요. 개신교는 로마교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가 제정한 비성경적인 교리와 신조를 많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요일 주일 주장은 로마교의 교리입니다. 성경교리가 아니지요. 또 영혼불멸설도 성경교리가 아닙니다. 아울러 영원지옥도 성경교리가 아니지요. 등등, 이런 것들은 그들이 바벨론의 딸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머니 바벨론과 딸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우상숭배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요. 이런 상태는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주장하니까 그대로 따르면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 그것이야 5절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 개신교회는 아직도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문화와 전통과 신학에 매여 있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듣는 귀가 둔해지는가봅니다.

답: 목사님,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벗어나기 힘 드는 것이 문화입니다. 풍습이라고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 문화 환경에서 생활하면 온 사회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활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니까요. 기독교도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는 것이나 영혼불멸, 영원지옥 등은 다 로마교에서 온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솔직히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엉뚱한 구절들을 억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신학을 만듭니다. 그렇게 신학을 확립해놓으면 이제는 성경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딸 노릇을 잘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학과 전통과 교회문화를 성경보다 더 따르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말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3.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야 하겠지요. 이제 다음 구절을 살펴야하겠지요.

답: 예, 6절이지요. [계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 창녀로 표현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를 보는 요한이 크게 기이히 여깁니다. 기이히 여긴다는 말은 “다우마조”인데요, 엄청 놀란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여자는 교회를 표상하는 것을 요한은 잘 알고 있지요. 그 화려하게 차린 교회가 창녀라고 하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 교회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취해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광야로 갔다고 했지요. 그 광야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3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요. 이 교회국가를 조종하는 교회가 순결한 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많이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과 하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였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부터 일곱 인, 일곱 나팔 예언을 공부할 때에 여러 번 말했습니다.

4. 참 기이한 일이 맞습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니 열만 기이하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예언적 표상이 또한 기이합니다. 계시를 보는 요한이 기이히 여기니까 천사가 왜 기이히 여기느냐고 하는군요.

답: 예, 천사는 그 음녀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밝혀주는 것이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선 읽고 이야기를 나누지요.

[계17:7~11]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하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 주석가들을 어렵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교회 학자들도 이 구절에 대하여 정설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선 7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기이히 여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선 천사가 설명한 그 내용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에, 시방, 장차”라는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는데요, 이 시점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그때를 기점으로 전에, 시방, 장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계시가 진행되는 역사적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 시방, 장차로 볼 것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가 이 이상한 짐승과 여자가 심판을 받을 때에 관한 것이라고 1절에 말했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을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은 7~11까지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해야 합니다.

5.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11절까지 가기 전에 8,9절부터 차례로 설명을 하면서 10절 11절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답: 그럴까요. 8절을 읽어보시지요.

[계17:8]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감사합니다. 요한이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라에 대한 예언이지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짐승이 있는 시점을 밝혀야 하거든요. 그것은 10절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과 대조가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록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고 했지요.(계1:8, 4:8) 그런데 이 짐승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자입니다. 이것은 13장에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사실을 말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니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를 기이히 여기리라고 한 말도 13:8의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를 어느 정도 밝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붉은 빛 짐승은 13장의 바다짐승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13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 짐승에 대한 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색깔이 달라진 이유는 17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독자적인 색깔을 완성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붉은 용으로 표현된 루시퍼의 색깔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상태로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생명책이라고 했는지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즉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결코 그 것을 보고 기이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체를 확실히 알기 때문이지요.

6. 알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전체를 설명해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9절로 가야지요.

답: 그러면 목사님 9절을 읽어주시지요.

[계17: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3:18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고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17장의 짐승과 13장의 바다짐승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연결고리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17장을 읽으면 전반부에서 계시를 보는 요한의 관심이 짐승을 탄 여자에게 쏠린 인상을 받는데, 후반에서는 오히려 짐승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계시를 전하는 천사가 요한을 그렇게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3장의 666을 알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짐승의 정체를 아는데도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전2:5~7]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데는 세상 지혜가 때때로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도록 굴복해야 합니다. 9절은 이 계시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는 암시를 하신 것이지요.

7. 예, 목사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주 일깨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늘 기억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짐승의 일곱 머리를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했습니다.

답: 9절 10절을 읽으면 정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계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씀에는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은 곧 일곱 산이기도 하고 일곱 왕이기도 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또 17:1에는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으니 많은 물도 동일한 것이지요. 일곱 머리=일곱 산=일곱 왕=많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의 일곱 머리를 생각하려

면 다니엘서 7장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 짐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곱 머리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성경에 나타난 고대 제국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저의 이런 이해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렇겠지요.) 그런데 계시록 17장과 13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13장의 짐승과 17장의 짐승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13장의 짐승이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의 조합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17장의 짐승의 일곱 머리도 다니엘서 7장의 네 마리 짐승의 머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성경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예,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아주 적합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17장의 일곱 머리도 13장의 일곱 머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산입니다.

8. 예, 목사님, 그래서 17장의 짐승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보이거든요. 또 그 산이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답: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이 일곱 머리와 동일하다고 한 이 일곱 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 로마에 있는 일곱 산을 가리킨다고 보아 로마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시(市)는 일곱 언덕 위에 건설되었다고 하지요. (2) 단순히 짐승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3) 일곱 제국과 그 통치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4) 10절에 언급되는 일곱 왕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구절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10절에 말하는 일곱 왕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생각해봐야지요.

“일곱 왕”에 대한 견해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1) 로마 황제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따라서 로마 황제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아우구스투스(Augustus), 티베리우스(Tiberius), 가이우스(Gaius), 클라우디우스(Claudius), 네로(Nero), 갈바(Galba), 오토(Otho), 비텔리우스(Vitellius), 베스파시안(Vespasian), 티투스(Titus), 도미티안(Domitian)이 됩니다. 이런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별로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2)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즉 애굽, 니느웨,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일곱째는 로마 멸망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난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와 권세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그 설명 자체에 합리성이 없지요. 왜 마지막 일곱째를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지요. 앞에 여섯을 한 국가씩 말하면서 말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일곱”이 완전수이고 상징적인 수이기에 역사 전반에 걸쳐 짐승과 연관되어 나타난 악을 가리킨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되어진 예언이 여기 와서 일종의 막연한 상징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산, 일곱 왕은 분명히 역사에 등장한 나라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저는 다니엘 7장의 일곱 머리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했으니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일곱 머리는 이미 윤곽이 드러난 셈이지요.

9. 그렇군요. 거기 네 마리 짐승의 일곱 머리니까요. 네 마리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되지 않습니까? 헬라는 네 나라로 분열되었으니까 네 머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범위는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 되는군요.

답: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일곱 머리가 또 일곱 산이라고 했는지, 또 일곱 왕이라고 했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산은 왕국을 가리킵니다. 산이 어떤 개인을 상징한 예는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2장에서 우상을 쳐부순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뜻하지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렘51:2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계시의 천사는 곧 이 산이 일곱 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일곱 왕국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국인데, 그것이 많은 물이기도 하고 일곱 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많은 물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상징하는데 계시록과 다니엘에서는 유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왕국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게르만 민족 대이동으로 망하고 분열되면서 여러 나라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근대 유럽 여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0. 그런데 일곱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실제 다니엘 7장의 짐승은 네 마리 아닙니까?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고 이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확인되었는데, 네 왕국이라면 몰라도 일곱 왕국이라니까 어렵지요.

답: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으로 가야할 것 같네요. 그 헬라가 네 왕국으로 갈라진 것을 염두에 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문제를 거기서 찾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1. 목사님, 시간이 되었으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듣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17장의 비밀을 알아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지요.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속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